

ODA 리포트

2021
Vol.1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발행인 : 장 영 태 담당 : 한 덕 훈, 김 정 현, 전 혜 은 감수 : 조 정 희
전화번호 : 051-797-4666 E-mail: jh-kim@kmi.re.kr / 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 2021년 06월 30일



Contents

1

SDGs 관련
국제 동향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4

주요
행사

1 SDGs 관련 국제 동향

국제기구 동향

세계은행(World Bank)

● 2021~2025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회원국의 해양폐기물 대응 지역 행동계획* 개시

- * 2019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콕 선언 및 아세안 행동 강령 채택 등과 같은 성과 도출. 세계은행과 아세안사무국이 후원하고 태국 자연환경부의 주도로 마련
- (배경) 해양 플라스틱은 해양, 해안선, 강, 기타 내륙 수로를 오염시키는 동시에 해안 공동체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개발 과제로 인식된다. 2016년 기준 ASEAN 회원국에서 약 2억 4,300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3,170만 톤이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였다.
- 해양 플라스틱의 80%가량이 육지로부터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폐기물 가치사슬(plastic value chain)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 방안은 통합적·구체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①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재료투입 관리 및 감축, ②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강화 및 누출 최소화, ③ 폐기물 재사용을 통한 가치 창출
- 동 지역행동계획은 가치사슬에 기반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14개 지역행동과 4가지 행동강령 구성 요소(▲정책지원 및 계획, ▲민간부문 참여 확대, ▲연구혁신 및 역량강화, ▲공공인식 제고 교육 및 아웃리치)로 구별된다.
- (정책시사점) ASEAN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SDG 12번)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폐기물 관리 표준 마련과 및 소비패턴을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양 이해력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ASEAN Reg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Member States
(2021-2025)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기구(PEMSEA)

● 세계 해양의 날 기념, 해양원탁대화(Ocean Roundtable Dialogue, RTD) 진행

- * 2021년 12월 2일 제7차 장관급 포럼 동아시아 해(East Asian Sea, EAS) 총회 2021의 일련의 기술 세션 중 첫 번째 회의
- PEMSEA의 국가 파트너 및 EAS(East Asian Seas) Partnership 안팎의 기타 관심 있는 이해 관계자의 고위급 관리를 소집하여 지역의 청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범 사례 연구를 통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고 2030년까지의 EAS 로드맵 개발에 도움이 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 (정책시사점) 7차 장관급 포함 선언문 초안에 금번 해양원탁회의(RTD) 내용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7월 28일~29일 제13차 이사회에서 발표할 두 번째 초안을 작성 예정이다.



● 블루솔루션 프로젝트: 동남아 국가의 해상 운송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예정

- 독일 연방 환경, 자연 보전 및 원자력 안전부(BMU)의 지원으로 국제 해사기구(IMO)는 PEMSEA와 협력하여 동남아 국가의 해상 운송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 예정이다. 8개월간 지역 및 국가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조정하고 포괄적인 기술성/재무성/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며 저탄소 해운, 항만, 내륙 운송 시범 시연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준비 단계에서 IMO 및 PEMSEA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과 협력 예정이다. 캄보디아, 미얀마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역량 강화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를 지식 파트너 국가로 초청하여 사업 평가 단계에서 지식 파트너 국가의 프로젝트 참여 수준을 결정하고 확정한다.
- (정책시사점) 우리나라가 지식 파트너국가로서 블루솔루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ODA 사업이나 민간-공공 협력 프로젝트로 동남아 개별국 해상 운송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연계 및 발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강형철, 코이카 자문위원

해양·수산 ODA 발전 방향에 대하여

- 우리나라 2021년도 ODA 예산은 3조7,101억 원(유·무상원조 포함)으로, 그중 무상원조액은 1조6,237억 원이며, 무상원조 중 코이카 비중은 8,537억으로 52.6%이다. 그 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담당하는 ODA가 무려 7,700억 원이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ODA 예산은 '21년 기준 119억 원(25건)으로 농축산 1,006억(53건), 보건의료 677억(46건) 등에 비해 매우 규모가 작으며, 사업 건별 액수도 소액이다 보니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정부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분야 ODA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바, KOICA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ODA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1) 해양수산 ODA 전략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상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명문화하고 있고, KMI 내에 ODA 센터를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 ODA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금번 동 센터에서 개최한 해양수산 ODA 세미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동 분야 ODA 확대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천을 위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동 계획 수립 시 코이카와의 협력 또는 연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코이카 내부에서 농어촌 전략을 농촌전략과 해양·수산전략으로 분리·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협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2) 사업발굴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노력

- KMI의 해양수산ODA센터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해양수산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ODA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개발원조 이론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2)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3) 해당 사업 지역의 전문성이 있어야 사업발굴부터 사업수행까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KMI는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미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 실무이론 및 사업수행 전문성과 지역 전문성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코이카 직원들과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이카와 함께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용이한 교류 수단을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경험 많은 임금 피크 대상자나 OB들을 초청하여 사업발굴부터 수행까지 함께하거나 자문을 구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전문성의 제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지자체(부산시)와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성

- 코이카에서는 지자체(부산시)와의 ODA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0. 7월에 부산시와의 협에서 1) 정부와 KOICA ODA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2) 사업 추진 시 부산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 발굴 3) 정부시책 중 '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창출 190만 개 창출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4)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준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부산시 산하기관과 협조하여 동남아 자매도시 국가 16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그중 3개 사업이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코이카 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비록 사업으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사업발굴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코이카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같이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KMI ODA 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발굴에 협력하고 이를 코이카 사업과 연계시킨다면 향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 (결론)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SDGs의 14번째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수자원 관리, 수산양식, 항만관리, 어항 관리 등 많은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ODA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KMI를 중심으로 가능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집결된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 유무상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동 분야 ODA 사업의 활동 범위와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



KOICA 강형철 연구위원

hckang@koica.go.kr

〈주요 이력〉

코이카 운영지원실 연구위원(2020.03월~현재)

부산사무소장(2017.09.01.~2020.02.28.)

동티모르사무소장(2014.07.15.~2017.08.31.)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베트남

베트남 선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퇴역 실습선 한나라호를 수리하여 베트남 해양대(Vietnam Maritime University: VMU)에 무상양여하고 선박운영 실무교육 추진
- (사업목적) 베트남 선원교육 개선에 기여, 교육을 통한 취업 능력 제고를 통한 베트남의 지역 산업발전 지원, 한국 선사에 베트남 선원 취업 기회 증대

● 사업 주요경과

- (2019.11.13.~16.)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베트남 현지조사 및 베트남해양대 관계자 면담
- (2020.01.10.) 사업계약 및 착수
- (2020.02.~04.) 한나라호 수리 및 수검
- (2020.08.19.~08.25.) 도색, 부산오리엔트 조선소
- (2020.09.15.) 한나라호 부산항 출항(하이퐁 도착: 2020.9.21., 18:00시)
- (2020.9.23.~26.) 한나라호 인수인계 교육실시, 베트남 하이퐁
- (2020.09.26.) KMI-VMU 한나라호 인수인계 양여증서 서명
- (2021.03.24.~25.) 베트남 선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화상교육 실시
- (2021.04.30.) 사업종료

● 기대효과

- 베트남 역량 강화에 기여
- 현 정부 신남방정책 기조 부흥 및 국제위상 제고
- 한-베 양국의 상생 협력 촉진



● 관련 사진



[베트남해양대학교 훈련선 활용 현황]

Vietnam

Wednesday, June 23, 2021 - 9:03:17 Languages: Tiếng Việt English Français Español 中文 Русский

TOPICS: 15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Party Building COVID-19 UNSC Non-Permanent Membership East Sea Climate Change 13th National Party Congress

SOCIETY

Vietnam Maritime University receives training ship donated by RoK

The Hannara training ship, do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arrived at MPC Port in northern Hai Phong city, seven days after departing from Busan, Rector of the Vietnam Maritime University (VMU), Pham Xuan Duong, said on September 23.

VNA - Thursday, September 24, 2020 18:21 좋아요 0개 공유

RELATED NEWS

Vietnam, RoK foster bilateral relations in new situation
Monday, September 21, 2020 20:00

Deputy PM, FM Minh holds talks with RoK FM
Friday, September 18, 2020 18:29

BIDV, RoK federation promote cooperation
Friday, September 18, 2020 15:55

The Hannara training ship has arrived at MPC Port in Hai Phong city (Photo: VNA)

ADVERTISEMENTS

← Ads by Google

[Stop seeing this ad](#)

[Why this ad?](#)

MOST POPULAR

[베트남 현지보도 자료]

베트남 운용해양학 연구능력 확충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해양기상, 파랑, 폭풍해일 등 해양환경 변화 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클러스터컴퓨터, 관측장비 등) 및 역량강화
-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과 해양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베트남 운용해양학 연구능력의 확충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9년) 실시간 조위관측소 구축 및 해양예보시스템 기반구축
- (2020년)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 설치 및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수립
- (2021년) 고정식·이동식 해양관측장비 설치 및 운용,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 (2022년) 해양관측 및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서비스, 베트남 운용해양학 발전방안 및 정책 수립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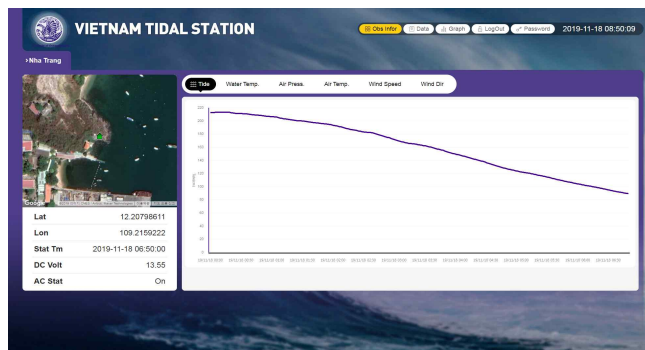
● 관련 사진

- 해양예측시스템 운영 교육: WRF 모델, MOHID 모델 기본 교육 및 자동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해양예측시스템 운영 교육]

- 조위관측시스템 구축
 - 나트랑(Nha Trang) 조위관측소에 디지털 압력식 조위관측장비 및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 세계적 기준을 만족하는 정밀도를 가진 센서를 탑재한 조위관측 시스템 구축



[조위관측시스템]

4 주요 행사

2021.05.20

2021년 해양수산 ODA 전문가 세미나

- 지난 5월 20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 ODA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관리 및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와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 회의실)을 통해 세미나 개최
 - 해양수산 개발협력센터의 업무추진 방안을 공유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구축
 - ODA 관련 외부 기관과의 공동협력 연구 논의 및 협력체계 구축
 - 장기적인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및 해양수산 ODA 중장기 추진 전략 논의
- 참여기관
 - 해양수산부(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개발협력센터(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부산국제교류재단(BFIC),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대학교
- 시사점
 - 해양수산 ODA 목표 정립, 체계적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합의 도출
 - 타기관의 ODA 부서 조직도 및 운영 전략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운영방안 도출

2021.06.29

2021년 상반기 OCEANAID 워크숍

- 6월 29일 해양수산 ODA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함으로써 해양수산 ODA의 유기적 연계 및 효과적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ZOOM을 활용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 예정
 - 해양수산 ODA 사업 관련 현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 해양수산 ODA 추진 시 발생한 문제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 모색
 - 2022년 신규사업 소개

● 참석자

- 해수부 및 소속·유관기관 ODA 사업담당자 약 30여명

※ OCEANAID

- 해수부 ODA사업의 브랜드명으로, ODA사업 일관성 확보 및 홍보효과 증대 도모
- '13.8.23~9.2까지 공모 후 내부 검토를 통해 선정된 브랜드로서 "OCEANAID from Ocean Friend Korea"를 부제로 함



2021.07.08

제2차 한-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

● 7월 8일~9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 예정

- 지난 2020년 10월 29일 외교부-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제1차 한-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함에 따라 “청색경제” 협력을 주제로 한 제2차 한-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를 외교부 아태협력과와 KMI가 공동개최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IORA 국가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 예정

● 현장 참석자

- IORA 사무국, IORA 해당국 주한공관 외교관, 해양/수산/해운/항만 국내 전문가 등 약 40명

●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IORA 청색경제 파트너십」
- 동 세미나는 3가지 세션으로 진행: ①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과 발전, ②지속가능한 해양 교통 연결성 증대, ③청색 경제의 잠재성 실현

● 기대효과

- 동아프리카, 인도, 아세안 등 인도양 권역 국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활용하여 향후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및 ODA사업 발굴 확대 기회로 활용

※ 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 환인도양연합

- 설립연도 / 사무국 : 1997.3.5 / 모리셔스 소재
- 설립목표 : 인도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 사회 분야 협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회원국(23개국) : ▲(서남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동남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평양) 호주 ▲(중동) 이란, UAE, 예멘, 오만 ▲(아프리카)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세이셸, 코모로, 모리셔스,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서유럽) 프랑스
- 대화상대국(9개국) : 한국('18가입),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이집트, 터키, 이탈리아